

■ 할로 분데스리가

‘로베리’ 지고 ‘코코’ 뜨나
바이에른 뮌헨에 새 바람

축구에선 어느 클럽이든 저마다의 전성기가 존재하기 마련이다. 전성기를 이끄는 감독과 선수들이 있을 것이며, 다양한 요소들이 합쳐져 클럽의 흥망성쇠를 좌우한다. 그러나 전성기를 지나면 변화와 세대교체가 이뤄진다. 그 어떤 명문 구단도 예외는 아니며, 독일 분데스리가의 바이에른 뮌헨 역시 그 기로에 서있다.

바이에른 뮌헨은 어느 클럽이나 부러워할, 이른바 ‘로베리(Robbery)’로 불리는 아르연 로번(31)-프랭크 리베리(32)라는 최강의 양 날개를 보유하고 있다. 로베리라는 이 강력한 조합은 분데스리가는 물론 국제대회에서도 위력을 떨쳤다. 특히 2012~2013년에는 분데스리가와 DFB(독일축구협회) 포칼, 그리고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를 석권하는 트레블에 앞장섰다. 공교롭게도 ‘Robbery’는 ‘협박·폭력을 수반한 강도죄’이라는 의미를 지닌 영어 단어이기도 하다. 그만큼 로번과 리베리의 폭발적 스피드에서 비롯되는 바이에른 뮌헨의 공격력은 상대팀에 굉장히 위협적이었다.

이런 강력한 양 날개를 지니고 있음에도 현재 바이에른 뮌헨에선 조심스럽게 세대교체가 진행되고 있다. 올 시즌부터 활약하고 있는 ‘코코(Co-Co)’ 듀오, 더글라스 코스타(25)와 킵슬리 코망(21)이 그 세대교체의 주역들이다. 현지 언론에선 ‘코코가 로베리를 대체할 바이에른 뮌헨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코스타는 분데스리가 17라운드까지 2골·7어시스트 외에도 포칼 1골, UEFA 챔피언스리그 2골을 기록했다. 코망도 UEFA 챔피언스리그를 포함해 4골·2어시스트를 올리고 있다. 코코 듀오가 선전하고 있는 가운데 리베리와 로번은 부상으로 인해 경기출전수가 현저히 떨어졌다. 리베리는 5일(한국시간) 9개월 만에 부상을 털고 돌아와 뮌헨글라트바흐와의 15라운드 경기에 출전해 1골을 터트리며 부활을 예고했지만, 또다시 부상에 발목을 잡혔다. 로번 역시 9월 아이슬란드와의 2016유럽축구선수권대회 조별예선 A조 7차전 경기 도중 허벅지를 다쳐 분데스리가 17라운드까지 7경기 출전에 그쳤다. 더군다나 로번은 시즌 도중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27)와의 불화설이 터져 이적설까지 날았다.

이런 와중에 코스타와 코망이 비약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니 바이에른 뮌헨으로서 반가를 따름이다. 코스타는 “현재 내 플레이에 만족하며 뮌헨에서 행복하게 축구하고 있다”고 말했고, 코망도 “뮌헨에 계속 머물고 싶다. 내 목표는 ‘제2의 리베리’가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에른 뮌헨은 20일 구단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 시즌 새 사령탑으로 ‘우승 청부사’ 카를로 안첼로티(56)를 내정했다고 발표했다. 아직 올 시즌 후반기가 남아있고, 내년 안첼로티 체제에선 무엇이 달라질지 모른다. 막강한 화력을 자랑했던 로베리가 부활할지, 아니면 새롭게 등장한 코코가 새 날개가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퀼른(독일) | 윤영신 통신원

편집 | 고창일 기자 ico@donga.com

한국 트라이애슬론 기대주 정혜림의 성장

리우를 향해 뚝다! ■ 트라이애슬론

2013년 입문…올해 세계대회 5위 상승세
체지방률·산소섭취량 등 신체조건 최적화
수영선수 출신…첫 종목 심리적 우위 이점

트라이애슬론(triathlon)은 라틴어로 ‘3가지’를 뜻하는 ‘트라이(tri-)’와 ‘경기’를 의미하는 ‘애슬론(athlon)’의 합성어로, 수영·사이클·마라톤 등 3가지 종목을 별도의 휴식을 부여하지 않고 연이어 실시하는 경기다. 올림픽 코스는 표준 코스라고도 불리는데, 수영 1.5km·사이클 40km·마라톤 10km로 구성돼 있다. 특히 ‘철인 코스’라고도 하는 장거리 코스는 표준 코스의 약 2배로 수영 3.9km·사이클·180.2km·마라톤 42.195km를 완주해야 한다. 이러한 종목적 특성에 의거해 ‘철인(ironman) 3종 경기’라는 수식어가 붙었다.

최근 대한민국 트라이애슬론 국가대표팀의 경우 재능 있는 주니어선수들을 일찌감치 발탁해 먼 미래를 내다보는 장기적 안목 속에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훈련시켜 2016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가고 있다. 특히 여자국가대표 정혜림(16·온양여고)의 성장이 눈부시다. 2013년 초 트라이애슬론에 입문한 정혜림은 그해 7월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우승했고, 각종 국내외 대회에서 꾸준히 좋은 성적을 내며 체육계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다. 지난해 아시아주니어선수권 1위, 세계주니어선수권 5위로 두각을 보인 데 이어 2014인천아시아게임에선 단체전(혼성팀) 은메달을 획득했다. 올해 9월에는 미국 시카고 월드트라이애슬론시리즈 그랜드파이널 주니어부 5위에 올라 꾸준한 상승곡선을 그렸다. 이처럼 차세대 주자들이 좋은 기량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트라이애슬론의 미래는 상당히 밝다고 할 수 있다.

신체조건에서도 정혜림은 트라이애슬론에 적합하다. 여자선수임에도 신장(키)의 제곱으로 체중을 나눈 ‘BMI(kg/m²)’가 정도 18이다. 일반인의 경우 정도 22가 보통 수준이고, 정도 25를 넘으면 비만으로 판정한다. 결국 정혜림은 체지방률(%)이 15% 이하 수준인 것으로, 그만큼 불필요한 지방과 근육이 없는 트라이애슬론에 최적화된 체형을 갖췄다고 볼 수 있다. 장거리선수의 전신지구력을 대변하는 ‘최대산소섭취량(VO2max ml/min/kg)’은 나이 어린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60(VO2max ml/min/kg) 수준이고, 마라톤을 했을 때 전반적인 페이스 스피드를 알 수 있는 ‘무산소역치수준(Anaerobic threshold)’은 최소산소섭취량의 90% 정도다.

트라이애슬론에선 마지막 세부 종목인 달

스포츠동아·KISS 공동기획



‘철인 3종 경기’로 불리는 트라이애슬론에서도 희망을 바라본다. 2014인천아시아게임 혼성 단체전 은메달을 목에 건 정혜림(사진)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각종 메이저 국제대회에서 꾸준히 좋은 성적을 내면서 2016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리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첫 종목인 수영에서 원하는 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하면 그만큼 심리적으로 불안해지고, 다음 종목인 사이클에서 순위를 따라잡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수영이 중시되고 있다. 정혜림처럼 수영을 전문적으로 해온 선수가 트라이애슬론으로 전향하는 경우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다. 그렇다고 무작정 수영만 잘한다고 해서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 없다. 과거와 달리 그저 ‘힘든 종목’이라는 트라이애슬론에 대한 세간의 인식도 상당히 긍정

적으로 바뀌는 분위기다. ‘나는 아버지입니다(원제 : Devoted)’라는 제목의 서적이 있다. 뇌성마비 아들과 아버지의 스토리를 담은 실화로, 철인 3종 경기에 부자가 나란히 참가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큰 용기와 감동을 준다는 내용이다. 또 인기배우 송일국이 삼둥이와 함께 철인 3종 경기에 도전하는 TV 프로그램도 있었다. 바다에서 찌뿔과 파도 등을 이겨내고, 수영과 전혀 다른 근육을 사용하는 사이클에서 스피드를 짜내고, 마라톤에서 최후의 고통을 감내하는 등 여러 가지 인간한게

를 극복한 뒤 찾아오는 극도의 성취감을 통해 독자들과 시청자들에게 다른 어떤 종목들보다 훨씬 큰 감동을 선사한 것이다.

겨우내 수영, 자전거, 달리기 등으로 자신을 단련해 내년 봄 철인 3종 경기에 도전한다면 아마도 우리가 걸어야 할 긴 인생의 마라톤에서도 새로운 생기와 활력소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다.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개발원(KISS)

스포츠과학실 책임연구원 송충선 박사

동부 80점대-전랜 70점대 예상 ‘1순위’

■ 농구토토 스페셜+ 29회차 중간 집계

동부, 올 시즌 전랜에 3전 전승 우위
KCC 80점대-LG 70점대 예상 최대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인 케이토토(www.ktoto.co.kr)가 24일 펼쳐지는 2015~2016시즌 국내남자프로농구(KBL) 전자랜드-동부(1경기), KCC-LG(2경기)를 대상으로 한 농구토토 스페셜+ 29회차 게임의 투표율을 중간 집계한 결과, 전자랜드-동부전에선 동부의 승리를 점진 참가자들이 많았다. 구체적인 투표율을 살펴보면 원정팀 동부는 80점대 예상(49.30%), 홈팀 전자랜드는 그보다 낮은 70점대 예상(40.14%)이 각각 1순위를 차지했다.

현재 11승21패로 하위권에 자리 잡고 있는 전자랜드는 리카르도 포엘의 재영입으로 2연승을 올리며 분위기에 성공한 듯했으나, 지난주 최하위 LG와 상승세의 삼성을 상대로 각각 79-95와 78-87로 패해 다시 연패에 빠졌다. 특히 전자랜드는 현재 득점평균 74.9점으로 리그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

이와 정반대로 동부는 3연승을 달리며 기세를 올리고 있다. 12월 차를 8경기 중 선두 모비스와 상위권의 KGC 등 강팀을 상대로 2차례

농구토토 스페셜+ 29회차 투표율 중간 집계

	1~69	70~79	80~89	90~99	100~109	110 이상
전자랜드	15.05%	40.14%	31.31%	7.35%	6.16%	0.00%
동부	5.69%	29.96%	49.30%	8.35%	6.64%	0.07%
KCC	11.90%	18.08%	40.08%	28.88%	1.01%	0.04%
LG	13.08%	38.94%	28.66%	18.37%	0.90%	0.04%

* 23일 오전 8시 현재 * 게임방식 : 2경기 및 3경기 최종 점수대 맞이기 * 발매마감 : 2015. 12. 24(목) 18시50분

패배를 당한 했지만, 가장 최근 경기에서 다시 만난 KGC를 상대로 87-82로 승리를 거두며 안방 7연승을 기록해 팀 분위기가 크게 올라가있는 상태다. 올 시즌 3차례 맞대결에서도 동부가 모두 이긴 바 있어 이번 대결 역시 승부의 추는 동부로 크게 기울고 있다.

KCC-LG전에선 KCC 80점대 예상(40.08%), LG 70점대 예상(38.94%)이 가장 높았다. 치열한 중위권 싸움을 펼치고 있는 KCC도 3연승으로 분위기가 한껏 올라가있는 상태다. 전자랜드로 간 포엘과 맞바꾼 허버트 힐이 골밑에서 위력을 떨치며 국내선수들과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어 3위 자리까지 넘보고 있다.

반면 최하위 LG는 올 시즌 주전 김시래의 군 입대와 문태종(오리온)의 이적으로 전력의 약화돼 부진한 모습을 펼쳐내지 못하고 있다. 독보적인 득점력을 보유한 트로이 길렌워터가

매 경기 제 몫을 해주고 있지만, 팀 승리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KCC의 최근 분위기가 최고조인 데다, 올 시즌 맞대결에서도 LG가 1승2패로 열세를 보이고 있기에 쉽지 않은 경기라 예상된다.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비롯해 국내에서 열리는 각종 국제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발매되고 있는 농구토토 스페셜+ 게임은 지정된 2경기(더블) 및 3경기(트리플)의 최종 득점대를 맞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최종 득점대는 69점 이하, 70~79점, 80~89점, 90~99점, 100~109점, 110점 이상 등 6가지 항목 중에서 선택하면 된다.

이번 농구토토 스페셜+ 29회차는 24일 오후 6시50분 발매 마감되며, 자세한 일정은 케이토토 홈페이지 및 공식 온라인 발매 사이트 베티맨(www.betman.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발견 즉시 신고하세요

사이트 신고 시 1만원 상품권 지급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보는 즉시 신고하세요!’

최근 인터넷상에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면서 이를 운영한 일당뿐 아니라 이용자들까지 불구속 입건되는 등 불법 스포츠 도박과 관련된 뉴스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내서 시행되는 모든 스포츠 베팅 게임은 국민체육진흥공단(www.kspo.or.kr)에서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www.sportsrtoto.co.kr)만이 유일한 합법이다. 온라인 역시 공식 인터넷 발매 사이트 베티맨(www.betman.co.kr)만이 운영할 권리를 지니며, 이외의 스포츠 베팅 관련 온라인 사이트는 모두 불법 스포츠 도박으로 간주된다.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의 경우 스포츠토토(회차당 1인 10만원까지 구매 가능)와 달리 베팅 금액에 제한을 두지 않아 사행성이 큰 데다, 가짜 명의의 이른바 ‘대포통장’을 통해 참가금액을 끌어모은 뒤 배당금 지급 없이 사이트를 폐쇄하고 잠적하는 사례가 많아 참가자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형편이다. 특히 이들 대부분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어 사법처리 또한 어려운 실정이다.

사이버머니, 현금, 아이폰 등 걸고 스포츠 경기 결과를 예측하는 유사행위를 비롯해

체육진흥투표권사업과 관련한 각종 부정행위를 목격한 사람은 ‘클린스포츠통합콜센터’(1899-1110)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사안에 따라 포상금 또는 상품권이 지급된다.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신고한 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에서 차단 결정 시에는 건당 1만원의 상품권,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자 신고 시에는 최고 1000만원, 이용자 신고 시에는 최고 30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또 국무총리실 산하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www.ngcc.go.kr)에서 운영 중인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를 통해 불법 체육진흥투표권 발매행위를 신고하면 신고 포상금 지급규칙에 의거해 최고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2012년 3월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자뿐 아니라 이용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기 때문에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토토/프로토) 이외 모든 유사 스포츠베팅행위는 ‘불법스포츠도박’이며, 이를 이용할 시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에 의거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클린스포츠 통합콜센터 [불법신고] 1899-1119
www.cleansports.or.kr
공식발매사이트 www.betman.co.kr